

보도시점 2024. 4. 25.(목) 14:00 배포 2024. 4. 25.(목) 09:00
(2024. 4. 26.(금) 조간)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 혁신 제품·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 기간 대폭 단축 (평균 5개월 내외 → 인증별 최장 2개월 이내)
-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된 인증 적용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 획기적 절감 (인증별 최대 5천만 원 → 약 5백만~2천만 원)
- △ 정보보호·소프트웨어 품질 수준은 유지하면서, 불편·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사후평가 개선, 유효기간 합리화 및 재인증 간소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4월 25일(목) 광화문 인근에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24.2.27.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관계부처 합동)'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이하 'SW')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강화를 위해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들 인증제도는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02~), △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16~), △ 정보통신망 연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18~),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02~),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18~), △ SW 품질인증(QS, '01~)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강도현 제2차관 주재 SaaS 기업 간담회를 비롯하여 정보보호·SW산업계 협·단체 및 주요 수요기업, 제도별 인증평가기관 등과 다수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인증제도별 개선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정보보호·SW 품질 수준은 유지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은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은 불필요한 행정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인증 적체를 즉각 해소하고, 신규 평가기관을 상반기 내 추가 지정하여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 지원은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인증 획득 이후 매년 실시했던 사후평가는 평가방식 개선(현장 → 서면 평가)**을 통해 사업자의 비용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평가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링 현장 점검을 도입하고,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평가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30% → 50%), △중기업(50% → 80%), △소기업(70% → 80%)

** 현장평가(유료) 4회 → 서류평가(무료) 3회+ 2년 차 현장평가(유료) 1회

②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 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줄이는(평균 1,100→500만 원)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개정 예정)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③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 인증은 수요기업에서 색깔 등 간단한 디자인 일부 변경에도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생모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험 기간(15일→1~2일) 및 수수료(13백만 원→0.7~1.4백만 원)를 대폭 줄이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기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색깔, 간단한 디자인(사각형↔원형 등) 변경은 필수 보안 기능 확인 등 수수료 대폭 완화(6백만 원(라이트), 13백만 원(베이직) → 0.7(A형 단순외형형) ~ 1.4백만 원(B형 일부내용시험))

④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및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은 평균 5개월 이상의 긴 소요 기간이 수요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시험인력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하여 시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신규 신청기업에 대한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하여 기존 5천만 원 내외 고가의 수수료를 2천만 원으로 절감하는 한편,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민간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여 올해 8월까지 절차 간소화 및 시험 수수료의 근본적 절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의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출물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험 수수료 지원을 확대하여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의 도입 및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24년 12개 사 대상 컨설팅 및 수수료 최대 1천만 원 지원(평균 1,700만→700만, 70% 감소)

⑤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SW 품질인증(GS인증)은 소요 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인증 수요가 5개의 인증기관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21.5월 신규 지정한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신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신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신규)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또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비용을 전액 면제(약 500만원)하고,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은 50% 감면(약 700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약 200만원 감면)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CC인증 → (확대)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이 외에도, SW 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등 SaaS 품질인증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각 인증제도 개선안과 별도로, 정부·수요기업 및 인증시험기관 간 간담회 등 정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인증시험을 진행 중인 수요기업도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5.1. 예정)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구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정보보호·SW 인증제도는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와 SW 품질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요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 되고, 인증제도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확산의 촉매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C · 성능 IoT 인증	정보보호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은수 (044-202-6450)
		담당자	사무관	박세진 (044-202-6455)
CSAP 및 ISMS 인증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	김성환 (044-202-6451)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6460)
		담당자	사무관	이의미 (044-202-6467)
GS인증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용 (044-202-6463)
		책임자	과 장	장두원 (044-202-6330)
		담당자	사무관	박선경 (044-202-6331)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방안

01 혁신 제품·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기간 획기적 단축

● 평가인력기관 확충, 시스템 자동화, 신규 기업 지원 강화 등으로 신청부터 판정까지 기간 대폭 단축 (각 인증별 평균 2개월 이내)

	CSAP	평가인력 추가, 평가기관 추가 지정(~6월)을 통해 인증적체 즉각 해소, 인증위원회 수시 개최 등으로 행정처리 기간 단축	평균	5개월	→	2개월
	ISMS	신청, 평가기관 지정, 점검 등 인증 절차 전반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기존 이메일우편), 불편·불필요한 시간 소요 감축	평균	5개월	→	2개월
	CC	시험인력 추가 투입, 인증 준비가 어려운 신규 신청기업에 제출문서 가이드, 템플릿, 사전준비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등 지원 하여 소요기간 단축	평균	5개월	→	2개월
	IoT보안	인증받은 제품 중 단순 디자인만 변경된 파생제품(신청의 30%에 대해 적용 하는 파생모델 제도(23년 시범) 본격 적용·확산	평균	15일	→	1~2일
	GS	3개 인증기관 평가 분야 확대 (5개→10개), 적극적 시험 이관 등 인증 수요 분산 및 시험인력 충원 등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	평균	3개월	→	2개월

02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인증제도를 활용하도록 수수료 절감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된 인증 적용으로 기업의 수수료 부담 획기적 절감 (각 인증별 5~20백만원 수준)

	CSAP	중견·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수수료 지원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확대(50%~80%)	중소기업 기준 80% 지원 (예: SaaS 표준)	2,900만원	→	약 600만원
	ISMS	매출액 300억 미만 중소기업 등에 평가항목(8개→4개)을 합리화한 ISMS 간편인증 도입(7월말~.85개사)	수수료 비용 50% 절감	평균 1,100만원	→	약 500만원
	CC	민간전문가,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근본적 수수료 절감방안 검토(~8월)	신규 신청기업 시험 수수료 50% 이상 감면	5,000만원	→	2,000만원
	IoT보안	파생모델 제도 적용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 개선과 더불어 수수료도 대폭 감축		600만원(라이트), 1,300만원(베이스)	→	70~140만원
	GS	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약 200만원 감면)로 비용부담 경감 업데이트 (경미한 변경) 재인증 비용 전액면제 및 업그레이드 재인증 비용 50% 감면	평균 1,400만원	→	<정보보호인증제품> 약 1,200만원 <재인증 제품> 약 0~700만원	

03 정보보호SW품질 수준은 유지하면서, 불편·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히 개선

● 매년 적용하는 사후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CSAP) 유효기간 합리화(ISMS) 및 재인증 등 절차 간소화(CCSGS) 신제품(SaaS)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 정비 추진(GS)

	CSAP	사후평가(SaaS는 서면으로 전환하되 샘플링 현장점검 ^{유료} 도입 다만,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23년지 사후평가는 현장점검	사후평가 간소화	현장(유료)	→	서면(무료)
	ISMS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및 인증 후 3년간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서면으로 전환	유효기간 조정	3년	→	5년
	CC	취약점 점검방식, 유효기간 연장(3년→5년) 평가 일부 서면화 등을 비롯한 시험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인증기준 완화 및 기업부담 경감 방안 마련(~8월)				
	GS	SW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6월) 국제 표준 반영,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GS인증기준 정비를 통해 SaaS 특화 품질인증방안 마련(6월)				

① 클라우드 보안인증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인증적체, 과도한 소요기간(5개월)에 인증 비용도 유료화되어 중소기업 부담 가중
개선	기간	○ 인증 절차상 불필요한 대기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인증기간을 5개월 → 최대 2개월로 개선 사업자 보완조치 기간 제외(1~3개월) ○ 평가인력 추가, 민간 평가기관 추가지정(~6월)으로 인증 적체 즉각 해소 추진(~4월)
	비용	○ 수수료 지원 비율을 최대로 확대, 중소기업 실부담 비용을 1천만원 이하로 절감 ※ 현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현재) 중견 30%, 중 50%, 소 70% → (개선) 중소 80%, 중견 50%까지 확대 ○ 인증 평가시 ISMS와 중복되는 평가항목 생략(61개), 등급별(상중하) 중복되는 평가항목 생략(40~50% 수준) 등을 통해 인증비용 50% 경감 추진
	절차	○ 최초평가 이후 유효기간(5년) 동안 매년 수행하는 사후평가(SaaS)에 대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방식(현장→서면) 개선 ※ 단, 서면점검에 따른 보안수준 저하 예방을 위해 샘플링 현장점검(무료)을 수행 → 점검 결과 미흡 기업은 매년 현장평가 ○ 既 인증받은 SaaS 서비스를 다른 IaaS 환경에 추가 구축하는 경우, 재평가 진행 → 사업자가 제출한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서면 평가로 개선(2주 소요) ※ 단, 서면평가 이후 1차년도 사후평가는 샘플링 현장평가(무료) 대상에 반영하여 점검

②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중견기업 이상으로 설계된 ISMS 평가항목(80개)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큰 부담
개선	기간	○ 이메일·우편 등을 진행하던 신청접수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6월) 하여 소요기간 획기적 단축(기존 5개월 → 2개월)
	비용	○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ISMS 인증심사 부담을 완화한 인증기준, 비용 감소 등* 「ISMS 간편인증」 도입 * △ 인증기준 경량화(80→40개), △ 수수료 약 1/2 감소(800~1,400만원→ 400~700만원) ○ 정보통신매출액 기준을 완화(100→300억)하여 ISMS 의무대상에서 제외(의무대상 525개 중 74개, 14%)(법 개정 要)

구분	주요 내용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취득 후 3년간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는 기업은 매년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 서면 전환 ○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법 개정 ฆ) ※ 유효기간 : CC인증 5년(최대 10년), CSAP 5년,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5년 등

3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IoT) 보안인증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단순 디자인 변경 등 파생제품에도 동일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개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받은 제품의 파생제품*(신청의 30%)의 인증에 적용하는 파생모델 제도('23년 시범) 본격 적용확산 (평균 15일→1~2일) * 제품 외관 색깔, 디스플레이 크기 등 기능 및 보안성능과 관계없는 단순 디자인 변경 제품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모델 제도 적용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와 더불어 수수료도 대폭 감축 (6백만원(라이트), 13백만원(베이지) → 0.7 ~ 1.4백만원) ※ 기본 모델의 경우 한-싱 간 IoT 보안인증 동등성 평가 진행중('24.3~5월)으로 이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인증 항목(현재 50개)을 국제적 수준과 맞추어 조정하고 이를 수수료에 반영

4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Common Criteria)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긴 소요기간(평균 5개월) 및 고가의 비용(5천만원 내외)이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
개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 단기 집중투입 등을 통해 시험기간을 최장 2개월로 단축,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 지원 및 자율테스트 환경 구축(~7월) ※ 제출문서 가이드-템플릿 제공, 사전준비 테스트베드 구축(KISA 가락청사 8층)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신청기업 시험 수수료를 50% 이상 감면하고(5→2천만원), 민간전문가, 인증시험기관, 산업계 등 연구반을 구성하여 근본적 수수료 절감방안 마련(~8월)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취약점 점검방식, 유효기간 연장평가를 비롯한 시험절차 전반에 대해 기업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8월)

5 SW 품질 인증(GS, Good Software)

구분		주요 내용
애로사항		소요기간 및 비용, 재인증 및 보안성 중복 평가 등 인증 획득 관련 부담
개선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인증기관 인증분야 확대*, 적극적 시험 이관 등 인증 수요 분산 강화 및 시험원 총원 등을 통해 소요기간 단축(평균 3개월 → 2개월) * (인증분야) TTA·KTL: 21개(전체), KTR·KTC·CID: 5개 분야 → 10개 분야로 확대 ○ 최초 인증기업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무료), 사전준비용 체크리스트 제공 등 사전준비 지원 강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재인증 비용 감면 대폭 확대(최대 700만원 감면)*, ②정보보호 인증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확대**(약 200만원 감면)로 비용부담 경감 * 업데이트(경미한 변경) 재인증 : (기존) 50% 감면 → (변경) 전액 면제(약 500만원) 업그레이드(중대한 변경) 재인증 : (신설) 50% 감면(약 700만원) ** (기존) CC인증 → (확대) 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품질에 영향이 적은 단순 변경* 등 재인증이 불필요한 경우를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6월) * 단순 기능오류 수정, UI이미지 및 안내 메시지 수정, 사용성 개선 톨팁 추가, 매뉴얼 변경 등 ○ SaaS 제품 특성*을 고려한 GS인증 기준 정비를 통해 SaaS 특화 품질인증 체계 구축 방안 마련(6월) * SaaS 제품은 '설치가 필요 없고, 다수환경(운영체제)을 고려한 시험이 불필요하나, 현행 GS인증에서는 관련 평가항목 포함